

동생하고 나하고  
날린 비누방울  
둥실둥실  
하늘로 올라가네.  
현정아!  
나, 하늘로 올라간다.  
기분 좋다 하면서  
동글동글 떠가네.

부모님  
[후원인]

얼범을 뒤적이다  
배꼽이 빠질 뻔했다.  
기저귀 하나 달랑 찬  
옷생기고 우락부락한 아기 가  
양손에 과자를 든 채  
입을 커다랗게 벌리고  
우렁차게 물어 젖혔다.  
오빠의 악정을 찾아낸 것 같아  
신이 나서 깔깔거리는데  
아이쿠야, 그게 나라나.

부모인

고양이가 내 배 속에서  
급식 먹을 때 되었으니  
어서어서  
급식 먹자 하는 것 같았다..

## 2학년( )반



백정우

꽃은 참 예쁘다  
풀꽃도 예쁘다  
이꽃 저꽃  
저꽃 이꽃  
예쁘지 않은 꽃은

한국  
한국  
한국

장옥관  
별비가 달린다

영마가 달려간다  
가스 놀 위에서  
다다다다다다다다락  
밤비가 달린다

卷之三

임석재  
조록조록 쪼록쪼록 비가 내리네.  
나가 놀까 말까 하늘만 보네.  
쪼록쪼록 쪼록쪼록 비가 막 오네.  
쯧쯧!! 진 간계드 갈 소가 어네

작은 상자 안에서  
볼꽃놀이를 한다.

四  
卷之二

雨前

신규

前 前 前  
前 前 前  
前 前 前

작은 상자 안에서  
옥수수가 터진다.

I